

“평범했던 내 스마트폰에 특별함을 입힌다!”

스마트폰 케이스 인쇄 자동판매기 ‘아티스트’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필수적인 액세서리로 등장한 게 케이스이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시 고장을 예방하고 개성있는 디자인 연출이 가능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케이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이 연간 1600억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사진도 넣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며주는 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 내 휴대폰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 ‘아티스트’를 소개 한다.

완전 자동이 아닌 반자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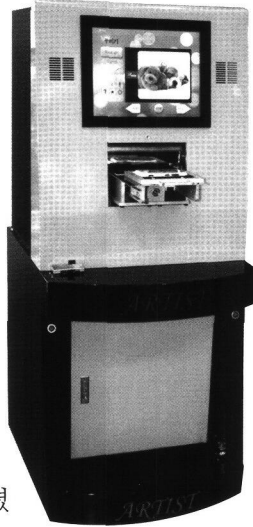
이 제품을 선보인 (주)드림젯코리아(대표:송필준)는 평판 프린터 전문업체이다. 평판 프린터는 휴대폰, 펜시, 인테리어, 가구, 판촉물, 실크인쇄, 텍스타일, 안경 등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이다. 이 분야에서 오래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하게 된게 ‘아티스트’ 스마트폰 케이스 인쇄 자동판매기이다.

이 제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동통신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한 결과이다. 과거의 핸드폰들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굴곡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개성있는 케이스 인쇄가 가능해졌다. 1년여의 기간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스마트폰 기종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런 문제로 ‘아티스트’는 100% 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즉 핸드폰 케이스가 자판기 내부에 모델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케이스 보관함에 적재되어 사람이 가져다 자판기에 넣어 주어야 한다. 스마트폰 기종들이 너무 다양하고, 신제품 출시도 빠르기 때문에 자판기에 적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또 적재에 욕심을 내면 기계 사이즈도 커지고 제작 단가가 높아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반영되었다.

‘아티스트’를 이용하려면 우선 터치스크린 창에서 핸드폰의 제조사 및 모델명을 선택한다. 가죽케이스인지 실리콘 케이스인지 소재를 선택한 후, 스킨 디자인 선택 및 꾸미기를 진행한다. 이어서 사진 불러오기 및 편집, 클립아트, 텍스트 넣기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케이스 소재를 가져다 올려놓으면 인쇄가 진행이 된다. 실리콘 케이스는 1분 40초, 가죽 케이스는 3분 만에 인쇄가 완료된다.

이렇듯 반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판매기처럼 완전 무인영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핸드폰 판매점 및 약세사리 전문점 등의 매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 제격이다.



‘아티스트’는 현재까지 국내에 15대선이 필드에 전개가 되었다. 아직은 많이 알

려지지 않는 않지만 대전의 한 홈플러스에 설치된 제품은 하루 15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한다. 보통 이용가가 13,000~18,000 원선이다. 마진율도 70%에 달해 제대로 이용만 따른다면 영업용기기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스티커사진자판기보다 고객층이 광범위

드림젯코리아는 국내 시장이외에도 해외시장 공략에도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에 일본,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50여대 제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 쪽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

드림젯코리아의 송필준 사장은 “일본 기프트쇼에 참가했는데 현지에는 없는 제품이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 정서와 맞아 수출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및 창업 전시회에 적극 참가해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약세사리, 충전기를 판매하며 ‘아티스트’ 영업을 결합한 프랜차이즈 사업도 선보일 계획이다.

특수인쇄 자판기로서 활용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팬시용품, 지갑, 다이어리, 메모장 등에도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장성을 볼 때 타킷 고객층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송필준 사장은 “스티커사진자판기는 10대 위주의 제한된 고객층을 가지는 반면 아티스트는 20~30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 드림젯코리아;www.phoneartist.net 02-2107-3627~8